전북도, 봄철 산불예방 대응활동 돌입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5월 15일까지 운영… 산불진화 임차헬기 3대 · 진화 감시원 1418명 가동

전북도는 '2023년도 전북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대비·진화·홍보 4대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워 세부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18명을 가동하며,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를 익산과 함양에 소재하는 항공관리소(산불진화헬기 8대)와 협력해 산불진화를 할 예정이다.

청명·한식, 어린이 날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8만5,392ha와 등산로 폐쇄구간 463km를 운영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도 금지된다. 농산부산물은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발적 소각 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적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일수의 증가 추세는 침엽수림(도내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4%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도내 특성상 산불에 취약하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산나물 채취 등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인접지역 내 논·밭두렁 태우기 등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도 지속되고 있어 이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도내에서는 연평균 25.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8.64ha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불은 이른 봄에 주로 발생(봄철발생 68%)했으며,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48%)로 나타났다. 다만,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도 26%로 나타나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해 도내에 50건의 산불이 발생해 35.56ha의 산림 피해가 있었고,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나타났다"며 "입산금지 지역은 산행을 금지해 주시고,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이 완전 금지됐으니 절대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도, 올해 첫 뎅기열 확진환자 발생

최근 필리핀 여행 후 발열 증세 보여 최종 확진 판정

해외 여행 늘고 있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도내에서 올해 첫 뎅기열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환자는 최근 필리핀 여행 후 발열 증세를 보여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입국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뎅기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뎅기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 전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상비약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중에는 모기가 많은 풀숲 등은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색의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귀국 2주 이내 발열, 발진, 두통 등 의심 증상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력을 알려야 한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열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를 하며, 출혈성 경향이 있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는 금하고 수액 보충 등이 필요하다. 치사율은 약 5%이며, 조기에 치료하면 1%로 낮아지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20%로 높아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한편, 연구원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고자 매개체 발생 감시와 병원체 검사를 수행하며,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확인 진단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 지사, 도의회 업무보고 소통 강조… 도정운영방향 설명

"도의회 주요질의 · 개선방향 면밀 검토해 정책 반영 ·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주력 강조

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2023년 도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상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소통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나 개선방향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후 진행상황을 적극 소통하자고 말했다.

또한 도민과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공직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내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 본청과 산하기관, 시군까지 인권침해 사례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추진에 대응해 관련 부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청과도 원활하게 협력해 교육협치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전북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부처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에 동시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3년 첫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2023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전북도지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대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혁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과감한 이민정책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준비에 매진해 특별한 전북, 특별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사업 확대 추진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규모 확대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신규 모집

전북도는 '일상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관련 사업비로 작년 대비 36% 증가한 총 21억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약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를 확대 모집한다.

이에 올해 탄소포인트제는 23만5,0000세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2,200대에 인센티브를 지급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가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포인트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반기별로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시기 제한 없이 탄소포인트 누리집(http://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해당 시·군에 문의해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모집 시기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면 된다. 2월 중 모집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마을, 공동주택, 학교 등 공동체 단위 탄소중립 생활실천으로 비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집한다

참여공동체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받는다.

2월 중 전라북도 누리집을 통해 모집 시기 및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역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2008년~2022년까지 230천세대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2020년~2022년까지 3천여대가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세무지서장 여직원 추행 유죄… 시민단체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하라"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노동 · 여성 · 인권단체, 성명서 발표…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촉구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노동·여성·인권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여직원을 추행한 전북의 한 세무지서장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세무지서 직원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는 "피해자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직장 내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며 "국세청은 이번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철저한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철저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은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는 디딤돌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 전담교수
• 스피치사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음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아침마당, MBC TV, JTV, TBN등 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스타일" 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사랑충서도사등 자격증 소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